

거점 국립대 육성...중·소형 국립대 반발

목포대·순천대·목포해양대 등 전국 19개 중·소대학 긴급회의 전남대 등 대형 국립대 육성 팬 지방 속 또 다른 불균형 우려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등 전국 19개 '중·소형 국립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 국립대 집중 육성'이라는 새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 대학 정책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방종하듯 대학 정책의 향배가 정해지면 그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중심 국·공립대기획조정협의회'(회장 류장수·부경대 기획처장) 소속 기획처장들은 최근 부산 남구 부경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한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중심 국립대가 살아야 한다"며 "지역중심 국립대를 소외시키려는 정부의 대학정책은 '지역 불균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가 규모에서 중소형이지만 해양, 수산, 농업 등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발전시키며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전국 29개 국·공립대 가운데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등 9개 '지역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국·공립대를 말한다. 전국 21개 시·군에 있는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공주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이다.

기획처장들의 회동은 지난달 초 제주 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다. 국·공립대 기획처장들이 이달 모임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새정부 대학정책 방향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처장들은 이번 회동에서 정부가 대형 국립대인 전남대, 부산대 등 9개 지역거점 국립대 위주의 불공정 국립대 육성 정책을 펼치면 중소형 국립대 경쟁력 약화로 그 지역도 공동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형 국립대인 부산대, 전남대와 각각 통합한 중소형 대학인 밀양대와 여수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대형 국립대로 몰리는 바람에 여수와 밀양 지역 캠퍼스의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새 정부의 대학정책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격차에서 이은 '지방 속에도 또 다른 지방'이라는 또 다른 격차를 만드는 '지역 불균형 정책'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하는 데도 국립대마저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국립대 위주로 편중 지원하려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조정협의회는 "중소형 국립대 혁신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발언을 모았다. 지역중심 국·공립대학들은 대형 국립대가 육성하기 힘든 분야의 인력양성에 특화되어 있고, 대형 국립대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빠른 특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회장(부경대 기획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정부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대학정책을 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각 대학의 의견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꾸려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국 4년제 국립대학은 모두 29개에 달한다.



목포대, 순천대 등이 속한 '지역중심 국·공립대기획조정협의회'는 최근 부산시 남구 부경대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중심 국립대를 소외시키려는 정부의 대학정책은 '지역 불균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목포대, 순천대 등이 속한 '지역중심 국·공립대기획조정협의회'는 최근 부산시 남구 부경대에서 회의를 갖고 "지역중심 국립대를 소외시키려는 정부의 대학정책은 '지역 불균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대학정책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격차에서 이은 '지방 속에도 또 다른 지방'이라는 또 다른 격차를 만드는 '지역 불균형 정책'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하는 데도 국립대마저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국립대 위주로 편중 지원하려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류장수 회장(부경대 기획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정부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대학정책을 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각 대학의 의견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꾸려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국 4년제 국립대학은 모두 29개에 달한다.

류장수 회장(부경대 기획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정부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대학정책을 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각 대학의 의견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꾸려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국 4년제 국립대학은 모두 29개에 달한다.

류장수 회장(부경대 기획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정부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대학정책을 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각 대학의 의견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꾸려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국 4년제 국립대학은 모두 29개에 달한다.

전남대 자동차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내일부터 나흘간 '2017 ICAT' 8개국 전문가 강연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이하 '2017 ICAT')가 5일부터 8일까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017 ICAT는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와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공동주관하며 광주광역시,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후원한다.

2017 ICAT는 1995년부터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가 진행해오던 차세대 자동차기술 국제심포지엄을 확대 개편한 행사다.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주지역 특화컨벤션으로 선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성장했다.

광주시의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총집결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 내연기관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주제를 다루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행사의 좌장은 최병철 전남대 자동차

연구소장(기계공학부 교수)이 맡아 'Clean Tomorrow'라는 주제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8개국의 대학 자동차연구소, 연구센터, 자동차 회사 및 부품회사의 전문가 16명이 강연한다.

이들은 고효율 및 무공해 내연기관 엔진, 연료전지 차량,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경량화 및 차량 제어 등 4가지의 세션으로 나누어 첨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흐름을 소개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인공인 신진 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구두 7편과 포스터 35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주니어세션도 마련된다.

최병철 자동차연구소장은 "2017 ICAT는 자동차 연구 및 산업 전문가들의 첨단자동차기술 발전과 흐름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라며 "특히, 국제그린카전시회와 공동개최함으로써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사의 좌장은 최병철 전남대 자동차

연구소장(기계공학부 교수)이 맡아 'Clean Tomorrow'라는 주제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8개국의 대학 자동차연구소, 연구센터, 자동차 회사 및 부품회사의 전문가 16명이 강연한다.



조선대, 입학사정관 75명 위촉...투명성 다짐

조선대학교 입학처(처장 이범규)는 최근 '2017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식 및 윤리성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윤리강령 선포식은 대입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와 입학사정관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이범규 입학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입학사정관 위촉장 수여,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 입학사정관들은 전임 입학사정관이 대표로 남동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서약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고 서약했다.

조선대학교는 2017년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전임교원 75명을 위촉했으며, 위촉된 입학사정관은 중·고교-대학 연계 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입학정책 연구 활동,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 등에 참여한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일반, 사회통합(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의사상사 및 자녀, 소년소녀가정 자녀 및 가정보호위탁보호 대상자), 기회균등(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생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등을 통해 813명을 선발한다.

조선대학교는 2017년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전임교원 75명을 위촉했으며, 위촉된 입학사정관은 중·고교-대학 연계 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입학정책 연구 활동,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 등에 참여한다.

GIST 등 과학특성화대학 도서관 포털 공개

10일부터 SNS 아이디로 이용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공동 구축한 도서관 통합 포털 서비스가 일반에 제공된다.

KAIST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구성원에만 제공해 온 4개 대학의 도서관 통합포털시스템 '빅스타 라이브러리'의 공개 콘텐츠를 일반에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빅스타 라이브러리 (<http://starlibrary.org>)는 2015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KAIST 등 4개 과학기술특

성화대학이 소장정보와 연구정보 등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려고 구축한 시스템이다.

논문 318만여건을 포함해 강의 동영상 1만여건, 연구동향에 관한 정보 6만여건, 연구과제 5만여건 등 모두 330만여건의 공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에 비해 이용률이 급증해 지난 한 해 전체 이용 건수만 60만여건에 달한다고 KAIST는 전했다. 일반인이 빅스타 라이브러리의 공개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네이버·페이스북·구글 등 소셜미디어(SNS) 로그인 ID로 가입하면 된다.

이들은 새 정부의 대학정책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격차에서 이은 '지방 속에도 또 다른 지방'이라는 또 다른 격차를 만드는 '지역 불균형 정책'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하는 데도 국립대마저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국립대 위주로 편중 지원하려는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체결

일자: 2017. 6. 28. (수) 16:30 장소: 순천대학교박물관 3층 회의실



순천대, 문화재 연구 지원 협약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 박물관은 최근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문화재 학술조사연구와 연구 분야 인력교류를 위한 상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 이자만 납부 OK! | 청약 통장 NO! | 즉시 입주 OK!

24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35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